■ 기아차 '무파업 임단협' 잠정 합의 배경

"지역경제 발목 잡나" 여론부담 타결

노사 양보 '타임오프' 갈등 마무리

광주공장 50만대 재편 사업 '탄력'

올해 노동계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지 20일만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기아차는 '20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파업 임단협 타결'이라는 새역사를 쓰게 됐다. 자동차 업계도 올해 무파업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역대 최악의 노사분규를 예상했던 '타임오프발(發) 노사대립'도 새국면을 맞게됐다.

◇무파업 합의 배경과 의미=타임오프를 둘러싸고 기아차 노사가 대립하는 동안 현대차를 비롯해 GM대우,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경쟁업체들의 잇따른 무파업 타결은 기아차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됐다.

여기에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아차 노조가 회사의 급성장을 볼모로 한 타임오프발 정치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과 고사직전의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

노사는 임단협을 늦게 시작한만큼 조기타결 의지가 강해 협상 개시 20일만에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장에 합의하는 등 노사 윈-윈의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업계 관계자는 "20년 만에 기아차가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마무리지은 것은 노사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론과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 간 경쟁 가열로 기아차 노조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협상의 잠정 타결은 20년 동안 계속되던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파업'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업계도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또 K5와 K7, 스포티지R 등 신차가 잇따라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차가 이번 노사 합의로 생산과 판매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괘속 질주에 발목을 잡았던 '타임오프발 파업'이 타결되면서, 파업에 따른 손실을 없애고 생산성 향상, 수익성 제고로 이어져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막판에 놓쳤던 내수 1위 자리도 다시 내다볼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 투쟁 사실상 마무리=노동계의 '대리전'에 나섰던 기아차가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타임오프와 관련된 노사간의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유급전임자수를 21명(파트타임 1명 포함)을 두고 노조가 임금을 자체적으로 주는 노조전임자 수는 앞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유급전임자 수가 당초 한도로 알려진 19명보다 늘어난 것은 1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을 2000시간이 아닌 1888시간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동안 기아차 협상을 예의주시해 왔다.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아차 노조의 전임자 처우 보장 요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다른 사업장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말 전체 조합원의 65.7%가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지만 실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기아차, GM대우 등 완성차 업체들의 파업 동참을 유도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던 금속노조의 투쟁력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번 타결로 아직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업장도 한도 내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목포·순천광양·여수 상공회의소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난달 31일 광주상의 회장실에서 '인수추진위원회' 구성 등 광주은행 인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光銀 지역자본 인수위 떴다

광주·전남 상의회장단, 박흥석 회장 등 인수위원 14명 확정

광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광주은행 인수전에 나섰다.

광주·목포·순천광양·여수 상공회의소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광주상의 회장실에서 회의를 열어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정·관·재계 인사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수위원에는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영택·이정현·장병완 국회의원,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 정순남 전남도 정무부지사,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 송영수 순천·광양상의 회장, 김광현 여수상의 회장, 이기승 보성건설 회장, 고재일 대창운수 회장, 전영복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구길선 변호사, 전병문 공인회계사 등이다.

이들은 지역 자본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의사결정을 비롯해 시·도민 홍보, 매각 공고와 우선 대상자 선정에 대비한 구상과 활동, 인수자 입장에서 광주은행 가치 평가, 인수 자본 유치 및 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인수추진위원회 창립회의를 열어 위원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은행 인수에는 1조5000억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인수자금 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이와 관련, "외부의 평가와 달리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한 결과 광주은행의 자산가치를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런 평가 액수를 넘는다면 '지역'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50%+1주 확보를 통해 지배주주가 되기 위한 인수자금 확보에도 "전략적 투자자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광주은행의 매각 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밝힌 상태여서 지역 상공인들의 뜻대로 '지역'을 배려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상의 등은 이에 따라 지역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의 당위성을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공개경쟁 입찰 대신 지역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등으로 전환해 지역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 제조업 업황 상승세

5개월만에 … 체감경기는 여전히 안좋아

중기중앙회지역본부 조사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의 업황 전망이 5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체감경기에 대해 다소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지역 중소 제조업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9월중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 업황전망SBHI(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97.5로 전달(92.2)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103.3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5개월만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업황전망 SBHI가 상승한 것은 생산과 내수, 수출 경기의 회복과 추석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9월에도 중소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변동 항목별 SBHI를 보면 생산(90.9→98.5), 내수(89.9→95.3), 수출(85.3→90.0), 경상이익(84.0→92.9), 자금사장(86.1→91.0), 원자재 조달(93.3→94.4)은 전달보다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인 상품 구매력 아시아 7위

1인당 2만8036달러

■ 2009년 PPP 기준 1인당 GDP (단위:달러)

순위	국가	액수
1	싱가포르	50,795
2	브루나이	48,194
3	홍콩	43,046
4	호주	37,132
5	일본	32,620
6	대만	31,727
7	한국	28,036
8	말레이시아	13,493
9	카자흐스탄	10,733
10	아제르바이잔	9,943

〈자료: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7번째로 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구매력지수(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03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38개국 중 싱가포르(5만795달러), 브루나이(4만8194명), 홍콩(4만3046달러), 호주(3만7132달러), 일본(3만2620달러), 대만(3만1727달러)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이들 7개국과 통계가 확정되지 않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1만3493달러) 뿐이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본건축비 484만9000원

내달부터 1.2% 인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부터 3.3㎡당 479만1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1.2% 인상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자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9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고시하고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기본건축비(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는 3.3㎡당 479만1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5만8000원(1.2%) 상향조정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0.4~0.7% 오르고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신규 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이 위축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42.75 (-17.38)

▼ 코스닥지수 464.71 (-1.38)

▼ 금리 (국고채 3년) 3.55% (-0.03)

▲ 원·달러 환율 1,198.10원 (+6.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